

스타벅스 커피가 가장 비싼 곳은 한국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세계 13개국 주요 도시의 물가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물가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42개의 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제품의 가격을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도시들은 서울, 뉴욕, 베이징, 도쿄, 베를린, 파리, 런던, 밀라노, 토론토, 시드니,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타이베이 등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2,47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한국이 4,1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칠레산 와인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수입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13개국 중에서 한국에서의 가격이 가장 비싼 품목 중에는 고기와 청포도가 있었고, 탄산수와 음료 제품들도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aynak: 뉴스로 한국어 공부하기, News in Korean, Talk to me in Korean, Long Tail Books, 2015, s: 92

Konu ile İlgili Sözcükler

- 최근
- 소비자
- 단체
- 물가
- 비교하다
- 상위
- 농축산물
- 가공식품
- 저렴하다

- 판매하다
- 밝히다
- 수입
- 수입량
- 증가하다
- 품목
- 탄산수
- 전반적이다
-

Tartışma Soruları

- Kore'de kahve kültürü
- Kafeler ve kafelerdeki kahve tüketimi
- Geleneksel çay kültürünün yerini kahve kültürü nasıl aldı?
- Kore'deki kahve dükkanı zincirleri